



제목	The Siege and the Fall of Constantinople in 1453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1. 4. 28.
저자	Marios Philippides, Walter K. Hanak
출판도시	Abingdon
페이지수	816
ISBN 또는 ISSN	978-1409410645

**내용 요약**

『1453년 콘스탄티노플 공성과 몰락』은 1453년 오스만튀르크의 콘스탄티노플 공성전과 점령에 대한 문헌 사료의 논쟁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부 ‘웬’에서는 사건들을 개관하면서 문헌 사료, 증언, 당대인들의 기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성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포로의 라틴어 기록, 비잔틴 귀족의 그리스 문헌은 당대의 설명으로 볼 수 있지만, 점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난 16세기의 기록이라 신빙성 문제가 발생한다. 공성전에 대한 기록 검증과 함께 저자인 필리피데스와 하나크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신화와 전설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2부 ‘검은 공성전 자체에 대한 설명과 문헌 사료와 물질적 증거를 조율하려고 한 글이다. 테오도시우스의 성벽과 콘스탄티노플의 서부 방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저자들의 현장 답사에 기초한다. 그리고 7주에 걸친 공성전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의 입구인 금각 만에 처져 있는 쇠사슬을 통과한 4월 22일을 가장 기억할만한 사건으로 꼽았다. 저자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풀려고 노력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잔틴 제국에서 유명한 루카스(Loukas Notaras)의 점령 후의 삶을 추적한 것이다. 그는 살아남아서 메흐메트 2세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처형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문헌 사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콘스탄티노플 몰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중세사를 공부하려는 학습자들에게 유익하다. 특히 당대의 증언에 기초한 공성전에 대한 연대기와 방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목록은 특이한 기록이다.